

‘K-섬유’ 재도약을 위한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 출범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5. 5. 20.)



산업부는 산업용 섬유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‘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’를 출범하고, 맞춤형 기술개발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5월 20일(화) 오후 4시, 서울 섬유센터 2층 텍스파 캠퍼스에서 ‘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’ 출범식을 개최하였다.
- 산업용 섬유 분야의 수요·공급기업, 시험연구기관 등 주체 간 협업과 기술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, 국내 산업용섬유 제조기업,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, 시험·연구기관, 협단체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였다.
- 얼라이언스는 산업용 섬유 소재·부품·완성품 등 공급기업, 자동차·의료·항공 등 수요기업, 섬유 전문 시험·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업하여 유망 산업용섬유 신규 품목 발굴 및 용도 확대,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우선 과제로 올해 말까지 수요산업 맞춤형 ‘첨단 산업용 섬유 기술개발 로드맵’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.
- 출범식에서는 도레이첨단소재(주)에서 아라미드, 탄소섬유 등 산업용섬유 분야의 원료·소재·제품에 이르는 기업 간 협력 및 사업화 성공모델을 발표하였고, 향후 얼라이언스의 성과 창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였다.
- 산업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“산업용 섬유는 우리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분야인 동시에 자동차,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고도화에도 긴요한 핵심소재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과제들이 정부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